

조선 초기 모계 풍수의 영향력 고찰

- 주역의 음양론과 생물학적 동기감응 기제를 중심으로

정다운*

국문초록

본 연구는 풍수지리학의 핵심 이론인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을 『주역(周易)』의 음양론과 현대 생물학을 접목해 재해석하였다. 조선왕조는 성리학적 질서 아래 부계 중심의 풍수 담론에 편향되었으나, 음양의 대대(待對)와 변역(變易)이라는 본질에 주목하여 생명 탄생의 근간인 ‘모계(母系) 풍수’의 관점에서 이를 고찰하였다.

동기감응론의 과학적 근거로서 모계의 형질을 온전히 보존하며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mtDNA)와 모자간 세포 상호작용인 ‘태아 미세키메리즘(Fetal Microchimerism)’ 현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실증하고자 심온과 순흥안씨 묘역, 현덕왕후 소릉, 흥녕부대부인 인천이씨 묘역, 장순왕후 공릉의 사례를 풍수지리적 요소로 분석한 결과, 자손의 안위는 모계 음택의 안정성과 수세(水勢)의 득파(得破)에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함을 확인하였다. 조선 초 절사손장자(絶嗣損長子)의 비극은 세종 영릉의 결함 때문만이 아니라, 모계 음택의 풍수적 문제가 중첩되어 일어난 결과임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동기감응론의 감응 관계의 추적에 있어 추가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 동양문화융합학회 편집이사(풍수융합 전공)

있다.

주제어: 동기감응, 풍수, 모계 풍수, 단종, 대대(對待), 음택풍수, 『지리신법』

1. 서론

조선왕조는 성리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하여 개국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법제 및 문화적 양식은 인간의 도덕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학문인 성리학을 바탕으로 정립되었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음양의 상보적 조화 속에서 변화한다는 원리는 인간의 생명 탄생 또한 부계와 모계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전통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조상의 유골과 자손이 서로 감응한다는 동기감응(同氣感應) 원리는 그간 대체로 부계의 음택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측면이 강하며 부모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생명의 실질적인 에너지는 양(陽)의 부계 형질뿐 아니라 음(陰)의 모계 형질이 결합되어 완성된다.

이러한 모계의 중요성은 현대 생물학의 미토콘드리아 DNA(mtDNA) 모계 유전 법칙에 의해 과학적으로도 뒷받침 된다. 이는 기존의 동기감응론을 부모라는 포괄적 영역에서 ‘모계 풍수’라는 독립된 영역으로 고찰해 보아야 할 당위성을 제공한다.

조선 초 세종에서 예종에 이르는 시기는 유교적 왕도 정치의 기틀이 마련되는 동시에 왕권의 찬탈과 재편이 발생한 정치적 격변기였다. 이 시기 왕실 가계 대군들의 연이은 요절과 비극적 흉사들은 대개 세종의 영릉(英陵) 초장지를 원인으로 보는 부계 중심의 풍수적 시각으로 해석되었으나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소헌왕후의 외가 및 현덕왕후의 소릉(昭陵) 파묘 사건 등 모계 사망과 음택 변동이 자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손의 흥사 이전에 모계 친족의 사망이 있었는지와 그곳의 음택풍수 상태를 분석해 인과성을 고찰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역의 음양론과 현대의 유전학적 발견을 토대로 동기 감응론을 ‘모계 풍수’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조선 초기 왕실 가계 변동 데이터를 중심으로 모계 풍수가 자손에 끼친 영향을 규명하여 이를 풍수적 판단의 새로운 분석의 지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릉과 영릉 및 현릉은 본 연구의 논지인 모계 풍수의 연관성에 집중하고자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와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풍수적 판단은 『조선왕조실록』과 『청오경』, 『금낭경』, 『지리신법』 등의 풍수 고전을 참고하였다. 그 판단 기준은 간룡법(看龍法), 장풍법(藏風法), 득수법(得水法), 정혈법(定穴法)의 형세론(形勢論)과 『지리신법』의 향법(向法)을 지리오결의 판단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현장 실측 및 지형도를 교차 검증하여 분석하였다. 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와 브이월드 3차원 지형도, 구글어스 등을 활용하였다. 좌향은 『지리신법』에 따라 천반봉침을 기준으로 도상에서 측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2. 동기감응론의 철학적 토대와 모계 유전의 생물학적 고찰

2.1. 성리학의 우주론과 『주역』의 음양관

조선 통치 이념의 기반인 성리학은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리(理)와 기(氣)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였다. 이것은 『주역』의 태극에서 시작된 것으로 「계사상전」에는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 양의를 생하고 양의는 사상을 생하고 사상은 팔괘를 생한다.”라고 하였다.

음양이 갈마드는 것을 도라 한다는 의미의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 또한 『계사전(繫辭傳)』의 내용으로 우주의 질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음과 양은 끝없는 순환과 대대(待對) 속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이기론에서 이와 기는 형이상학적 원리와 형이하학적 형질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석의 양극처럼 홀로 존재하지 못하는 서로 동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계의 계승은 단순히 부계의 혈통을 잇는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하늘을 상징하는 부계와 땅을 상징하는 모계의 기운이 합덕(合德) 할 때 비로소 온전한 생명이 발현될 수 있다. 『주역』의 음양론은 왕실의 안녕 또한 부계뿐 아니라 모계의 기운이 동등하게 공존할 때라야 더욱 번성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2.2. 동기감응의 원리와 전통 풍수지리의 담론

동기감응이란 같은 기운끼리는 서로 감응한다는 뜻으로 『주역』 건괘(乾卦) 「문언전(文言傳)」에 “동성상응 동기상구(同聲相應 同氣相求)”라 하여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를 찾는다는 뜻이다. 『청오경』에서는 ‘동쪽 산에서 더운 기운을 토하면 서산에서 구름이 일어난다.’¹⁾고 설명하고 있다. 『금낭경』에도 ‘구리광산이 서쪽에서 무너질 때 신령한 종이 동쪽에서 응하여 울린다.’²⁾라고 하여 물질적 감응의 사례를 들고 있다. 이러한 예시는 풍수지리의 주요 개념인 동기감응의 철학적 토대가 되었다.

장사를 지낸 조상의 유골이 지기를 얻어 편안해 지면 같은 기운을 나눈 자손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논리로 성리학의 효 사상과 결합해 조선 시대의 주요가치로 유지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건국에 있어 도읍을 정하는 과정에서 풍수지리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왕실의 능·원·묘 뿐 아니라 자녀들의 태실을 선정³⁾하는 것에도 풍수지리가 활용되었다.

1) 『靑鳥經』, “東山吐焰 西山起雲.”

2) 『錦囊經』, 「內篇」氣感 “是以, 銅山西崩 靈鐘東應.”

3) 『世宗實錄』卷1, 世宗 卽位年(1418) 8月 14日 辛卯 “今將涓吉朔安胎, 請依前例, 立

그러나 당시 풍수적 관점은 물질보다는 정신을 중요시했던 것처럼 음보다는 양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 음양론의 대대적 상호 균형적 성격보다는 남존여비(男尊女卑)로 부계혈통의 가치를 우선하였다. 특히 초반에는 모계혈통의 감응 기제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홀한 태도를 가져왔으며 심지어 외척의 힘이 강한 경우 이를 고의로 약화하기 위해 죄가 없는 왕비의 가족들을 사사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조선 시대의 풍수적 관점 또한 부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고 모계에 대한 검토는 부차적이고 종속적이었다.

2.3. 모계 유전의 특수성과 생물학적 동기감응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주관하며 ‘생명의 발전소’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신체 세포에서 호흡과 에너지 생산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소기관으로 필수 에너지원인 ATP를 생산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자체적으로 DNA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미토콘드리아 DNA(mtDNA)라고 한다.

그런데 이 mtDNA는 오직 난자를 통해서만 자손에게 전달되며⁵⁾, 이는 부친의 유전정보와 절반이 섞이는 핵 DNA(nDNA)와 달리 모계의 형질을 온전히 보존하며 전승된다.⁶⁾ 미토콘드리아의 운영 설계도는 부모 모두에게서 받게 되나 기본적인 틀은 모친의 계보를 물려받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세대를 거처도 섞이지 않고 복제되어 전달되기에 mtDNA에 한해서는 어머니와 자손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기(同氣)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생명체가 지구에서 살아갈 때 하늘이 아닌 땅을 기반으로 하듯이

胎室都監, 擇吉地”

4) 『世宗實錄』卷74, 世宗 18年(1436) 8月 8日 辛未 “(…)藏胎之法, 擇吉地以安之, 預養壽福.”

5) Mitalipov, Shoukhrat et al., “Molecular basis for maternal inheritance of human mitochondrial DNA,” *Nature Genetics*, 55(10), 2023, pp. 1632-1639.

6) 박소형,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법을 이용한 한국인의 미토콘드리아 전체염기서열분석」, 서울대학교 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7, 8~9쪽.

인간의 생명은 난자를 기반으로 시작하는 것과 유사하다. 정자의 크기는 약 0.05mm(50 μ m)이며 여기서 머리의 크기는 5 μ m이다. 난자의 크기는 약 0.13~0.2mm(130~200 μ m)이므로 지름은 26에서 40배이며 부피는 최대 64,000(40³)배 차이가 난다. 정자의 역할은 운동을 통해 이동하여 유전자를 전달해 수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정자의 mtDNA는 꼬리에 존재해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목적이므로 수정과정에서 제거되어 유전 정보가 남지 않게 된다. 그러나 난자는 자체적으로 세포질에 mtDNA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수정된 후에도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

또 현대의 분자생물학에서 밝혀진 ‘태아 미세카이메리즘(Fetal Microchimerism)’⁷⁾ 현상은 모계 동기감응의 기전을 설명하는 추가적 근거를 제공한다. 아들을 임신했던 여성들의 혈액 속에 출산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아들의 Y염색체를 가진 세포가 발견되었는데 뇌, 심장, 폐, 간 등 거의 모든 장기에서 발견되었다.⁸⁾ 특히 태아의 세포가 손상된 모체의 심근으로 이동하여 심장 세포로 직접 분화함으로써 모체의 회복을 돕는다는 카라의 연구⁹⁾는 자손과 모친이 단순히 유전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생명 에너지를 주고받는 상호 유기적 관계임을 입증한다.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현상은 과학적 필연성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모계 묘역의 상태가 자녀의 동기감응에 더 즉각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관점의 전통 풍수 담론을 현대 생물학적 관점에서 구체화하려는 시도이며, 이러한 가설적 연결성은 모계 음택의 환경 변화와 자손의 감응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일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적어도 모계 유전에 따른 동기감응이 부계 유전에 따른 동기감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감응할 수 있다는

7) 태아 세포가 어머니의 몸 안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현상

8) Diana W. Bianchi et al. , “Male fetal progenitor cells persist in maternal blood for as long as 27 years postpartum.”,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NAS)*, 93(2), 1996, pp. 705-708.

9) Rina J. Kara et al. , “Fetal cells traffic to injured maternal myocardium and undergo cardiac differentiation”, *Circulation Research*, 109(11), 2011, pp. 1294-1304.

가설의 생물학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왕비 및 외가의 음택이 흉지에 놓이거나 변고를 겪는 것은 자손에게 전달되는 동기감응의 근원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모계 풍수의 관점에서 추론해 보는 것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4. 선행연구검토

기존의 동기감응론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땅에 응집된 생기가 사람의 기와 만나 내적 감응을 얻는 음택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해석에서 시작되었다.¹⁰⁾ 이러한 해석의 방법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확장하여 상호 운명공동체 성격인 ‘생태적 동기관계’로 재해석¹¹⁾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파동적 관점에서 동일한 파장을 가진 물질끼리 공명하는 현상으로 해석하거나¹²⁾, 인간의 기운이 천지와 통하여 천기에는 혼이, 지기에는 백이 감응하여 후손에게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¹³⁾이 일반적이었다.

해석의 범주를 이기론으로 확장하여 체백을 통한 친자 감응뿐 아니라, 마음을 통한 감응인 양자(養子) 감응도 가능하다는 연구¹⁴⁾도 있었으며, 조선 유학자들 관점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추길피흉(追吉避凶)적인 주술, 길흉화복, 지리 운명설에는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거부감이 있으나, 같은 기운끼리 모이고 감응한다는 공자와 주자의 관점은 인정하는 이중

10) 박현영, 「『葬書』에 나타난 동기감응설」, 『도교문화연구』 20, 한국도교문화학회, 2004, 309쪽.

11) 권선정, 「생태중심적 환경관으로서의 풍수 - 풍수 ‘동기감응론’의 지리학적 해석」, 『국토지리학회지』 38(3), 국토지리학회, 2004, 259-271쪽.

12) 정용수, 「전통풍수학의 파동론적 기의 대한 고찰」, 『한국정신과학 학술대회논문집』 27, 한국정신과학학회, 2007, 172쪽.

13) 정용수,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본 땅의 에너지 연구」,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0, 한국정신과학학회, 2009, 152-153쪽.

14) 이진삼·천인호, 「風水 同氣感應은 親子感應인가?」, 『한국학논집』, 4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401쪽.

적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¹⁵⁾

비판적 시각으로는 과학적 실증이 명확하지 않은 기(氣)의 관점은 해석이 불가하므로 서양적 자연관의 관점에서 벗어나 ‘감응(感應)’이라는 개념을 형이상학의 철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하였다.¹⁶⁾

조선왕릉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왕릉의 공간적 특성을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해 물리적 성분과 지형적 특성을 조사하거나¹⁷⁾ 왕릉의 봉분과 석실 등 외적 조건이 갖는 특징을 측정한 연구¹⁸⁾ 등 왕릉입지에 관한 풍수 관점의 형세적 분석연구와¹⁹⁾, 이를 수치로 계량화하여 특징을 분석한 연구²⁰⁾가 많았으며, 이기론인 지리신법과 삼합 이론으로 분석하여 길흉에 관한 판단을 한 연구²¹⁾가 있었다. 그 외에 왕실 사친(私親)의 제향에 관한 연구²²⁾ 및 역사, 문화적 관점의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조선왕릉에 관해서는 계량적이고 통계적 속성의, 왕릉의 구조 해석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동기감응론은 별도의 관점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동기감응론에 대한 보편적 관심은 묘지의 길흉이 결국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세종의 초장지 영릉

15) 박정해·한동수, 「조선 유학자들의 동기감응론 인식」, 『한국민족문화』 41, 2011, 29쪽.

16) 박일용, 「풍수 동기감응론의 역학적 접근」, 『한국민족문화』 6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151쪽.

17) 장은마·박경, 「조선시대 왕릉의 공간적 분포특성 - 위성영상분석과 지질·지형분석의 방법으로」, 『한국GIS학회지』 14(3), 2006, 286-297쪽.

18) 조인수, 「조선시대 왕릉의 현상과 특징: 명정대 황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62, 한국미술사학회, 2009, 69-98쪽.

19) 박경정, 「세계유산 조선 왕릉의 입지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20) 이재영, 「조선왕릉의 풍수지리적 해석과 계량적 분석연구」, 동방문화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1) 김철완, 「조선왕릉에 관한 풍수연구·좌향론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2) 김지희, 「조선시대 왕실 사친묘의 운영과 사도묘의 건립」,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英陵)이 장자에게 불리한 터였다는 실록의 기록과 함께 최초의 장자 계승자였던 문종이 삼년상 도중에 승하하여 사실로 확정된 것은, 이러한 동기감응론의 감응 대상에 대한 해석을 확신시키며 ‘부계 풍수’의 권위를 더욱 격상시키는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단종 이후의 사망 패턴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현덕왕후의 소릉 또한 당시에도 장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무시된 면이 있다.

기존의 연구는 혈연적 인과보다 동기감응 자체만을 추상적으로 다루거나, 부계혈통 위주로 연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전학적 발견과 생물학적 현상에서 착안하여 모계 감응의 관점으로 풍수적 분석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왕실의 흥사와 외가의 능묘 기록이 비교적 상세히 남아 있는 조선 왕실의 사례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조선왕조사에서 가장 번영했던 세종대에 발생했던 연이은 대군들의 흥사와 이어지는 문종과 단종의 비극,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세조와 이에 대비되는 의경세자(懿敬世子)와 예종의 시기까지를 지면 관계상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3. 조선 초기 모계의 번고와 자손 요절의 실증적 사례

3.1. 심온(沈溫)과 순흥안씨(純興安氏) 묘소

먼저 조선 초기 모계 풍수의 영향력을 실증하기 위해 소헌왕후 친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소헌왕후는 세종의 비로 세종의 태평성대를 뒷받침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태종의 외척 억제 정책으로 부친인 심온이 사사되었음에도 가문은 번영하였으나, 26년 후 모친의 사망 시점부터는 왕실가계에 잇따른 흥사가 발생하였다.

주요 사건의 흐름은 <표 1>과 같다.

〈표 1〉 심온 가문의 모계 사건과 자손 사망의 시 계열적 상관성

구분	인물 및 사건	날짜(음력)	향년	비고 및 상관성 분석
외조부	심온 사사	1418.12.23	44	소헌왕후 부친, 심씨 가문의 기반
외조모	순흥안씨 사망	1444.11.24	-	소헌왕후 모친 사망 및 명당 개장
자손	광평대군 요절	1444.12.8	19	안씨 사망 13일 후, 창진
자손	평원대군 요절	1445.1.16	17	안씨 사망 52일 후, 홍역
자손	소헌왕후 승하	1446.3.24	51	안씨 사망 1년 3개월 후 (합장 후 1년)
변동	순흥안씨묘 천장	1467.5.3		개장으로 인한 음택 지기 변화,
자손	세조 승하	1468.9.8	50	천장 1년 4개월 후
자손	임영대군 사망	1469.1.21	49	천장 1년 8개월 후

※ 날짜는 『세종실록』, 『세조실록』, 『예종실록』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의 날짜는 실록의 음력 기록을 따름.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부친의 사사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무사했을 뿐 아니라 더욱 번영했다는 점이다. 소헌왕후도 당시 5남매를 두었으나 그 후에도 5남을 더 낳았다. 그러나 모계인 순흥안씨의 사망과 묘역 변동 후에는 자손들의 흉사가 발생한 것이 대조적이다.

1444년(양력 1445년 1월) 안씨의 사망 직후 광평대군과 평원대군이 요절하였는데 사망원인이 창진과 홍역으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 전염병이 유행했으므로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일 것이다. 그러나 모계 동기감응의 관점을 추가해 보면 외조모가 사망하며 유전적 관련이 깊은 자손에게 급격한 변화가 투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실록의 기록처럼 왕비가 모친의 사망 이틀 후 광평대군의 집에 이어(移御)하였다²³⁾는 점도 광평대군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장례가 2월 28일²⁴⁾전에 끝났으므로 두 대군은 시신이 빈소에 머무는 시기에 사망하였다. 왜 다른 자손들과 달리 이들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는가는 개별적 건강상태와 고인과의 유전적 기질을 물려받은 정도에 따른 감응의 차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 관

23) 『世宗實錄』 卷94, 世宗 23年(1441) 閏11月 16日 己卯 “王妃移御于廣平大君 璵第.”

24) 『世宗實錄』 卷107, 世宗 27年(1445) 2月 28日 壬申 “大夫人既葬而卒哭”

런 묘역의 입지와 감응 관계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심은 묘소, 국토지리정보원 50K 지형도

위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13-10

이곳은 한남정맥의 안성 칠장산(492m)에서 석성산(471.5m)을 지나 소실봉(186m)에서 광교산(582m)으로 이어지는 맥상에서 응봉(196m) 서쪽 600여 미터에서 정방(丁方)으로 뻗은 용맥에 자리하였다. 용맥의 기복(起伏)과 위이(逶迤) 및 과협이 수차례 보이는 생룡으로 주산에서도 입수까지 좌우 변화가 여러 번 나타난 후 최종적으로 좌선입수 하였다.

백호가 여러 겹으로 발달하였으며 내청룡 또한 길게 뻗어 우선수를 거수하는 형태로 배산입수와 장풍득수를 만족하는 형세이다. 주산과 백호

안산 또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사신사가 모두 면(面)하고 환포하여 유정하다. 금성수의 수세는 사방(巳方)으로 모인 후 다시 남쪽으로 흐르며 관쇄(關鎖)가 잘 되어있어 길한 형태이다. 입수도두가 잘 발달하고 좌우 선익이 갖추어져 있으며 전순이 잘 형성되어 유혈로 판단된다.

조선 초기 대표적인 풍수 이론인 『지리신법』은 용수(龍水)의 좌향으로 길흉을 보는 방법이다. 산의 좌향을 흥범오행²⁵⁾으로 정하여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득파(得破) 지점의 방향으로 길흉을 판별한다. 24방위는 십이운성과 구성법을 적용한 길방과 흉방이 있는데 물은 길방에서 들어와야 하며, 흉방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길을 보는 이유는 물은 양(陽)에 속해 변화를 주관하여 길흉화복이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²⁶⁾

좌향을 분석해 보면 계좌정향(癸坐丁向)의 토산음국(土山陰局)에 입수(入水)는 북서 술득(戌得)으로 거문(巨門) 쇠(衰)의 길방이며, 사파(巳破)는 녹존(祿存) 태(胎)이므로 흉방이다. 거문의 쇠는 제왕과 주인의 자리로, 물이 흘러오면 제후가 천자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과 같고, 물이 이곳으로 흘러나가면, 천자가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는 것과 같아서 길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녹존은 병든 용으로 질병을 주관하므로 득파가 모두 적합하였다. 심온의 사사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살아남아 다시 번영하게 된 것에는 이러한 길지의 영향력이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풍수에서는 명당의 개장을 매우 꺼리는데 명당을 열게 되면 안정된 지기에 변화가 일어나 생기가 깨지기 때문이다. 명당의 이장(移葬)이나 합장은 이후 연이은 자손의 사망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대군들의 사망은 합장 이전이었으나 장녀인 소헌왕후의 승하는 합장 일 년여 후이며, 장남인 심준(沈濬, 1405~1448)도 합장 삼 년 후에 사망하였다.

이는 소헌왕후가 모친과 두 아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은

25) 김동규 저, 『協紀辨方書』, 명문당, 2018, 126쪽. 풍수에서 사용되는 오행으로 東·西·南·北을 木·金·火·水로 보는 正五行과 달리 丙은 艮·卯·巳, 화는 丙·午·壬·乙, 토는 未·坤·庚·癸·丑, 금은 丁·酉·乾·亥, 수는 子·寅·甲·辰·巽·辛·申·戌로 정하였다. 24방위 중 四正方와 四維方은 양에 나머지 방위는 음에 해당한다.

26) 『地理新法』, 「水論」, “故吉凶禍福見於水者, 尤急.”

상태에서, 합장으로 인해 안정적이던 부계 명당 터가 개장되며 응축되어 있던 생기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2〉 영월 청령포와 경북 영주시 순흥면, 카오맵

안씨 묘소는 22년 후 1467년(세조 13년)에 홀로 안성으로 천장(遷葬)되었다.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금성대군이 일으킨 1457년 경북 순흥의 단종복위 운동이 실패하자 세조는 순흥 주민들을 학살하는 정축지변(丁丑之變)을 일으켰다. <그림 2>와 같이 영월 청령포와 순흥은 소백산에 가로막혀 있으나 직선 거리상으로는 30km 남짓이다.

따라서 세조는 병이 깊어가던 시기에 여러 의미를 담아 순흥안씨의 묘소를 천장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조는 천장 1년 4개월 후 승하하였고, 넉 달 후 임영대군 마저 사망하며 세종과 소헌왕후의 직계 대군들은 모두 사망하였다. 3남인 심결(沈決)이 천장 3년 후 사망하였고, 차남인 심희(沈澣)만이 1493년까지 살아남게 되었다. 안성 천장지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그림 3〉 안성 이장지, 국토지리정보원 50K 지형도

위치: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산32-1

일반적인 묘역의 혈장이 지룡(支龍) 이하의 말단 용맥에 맺히는 것과 달리, 본 묘역은 대간룡(大幹龍)의 국세에 자리한 특수한 형태를 띤다. 한남금북정맥의 분기점인 칠장산(492m)을 중심으로 주산 쪽으로 한남정맥이 지나가며 안산(案山)은 금북정맥이 지나가는 거대한 간룡(幹龍)맥의 사이에 혈장이 포태되어 있다.

혈장은 내룡맥인 청량산(338m)에서 우선룡 위주로 직룡입수하여 해좌사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좌우로 용호가 자리하였다. 외청룡은 칠장산과 청량산 사이의 계좌정향 용맥이 청룡처럼 뻗어 있으나 혈장을 감싸는 형태는 아니며 수세 또한 남서향 하여 산수동거하는 흐름이다. 안산은 칠장산에서 칠현산(516m), 서운산(547m)으로 이어지는 금북정맥이 내룡맥을 압도하여 행룡하고 있다.

수세는 묘역을 중심으로 환포하는 형세로 현재는 금광호수가 자리하

고 있다. 관쇄는 청룡 백호의 관쇄가 아니며 외백호와 안산이 마주하는 형세이다.

좌향은 해좌사향의 금산음국(金山陰局)이며 수세는 건자득(乾子得)에 정파(丁破)이다. 건방(乾方)은 질병과 재앙을 주관하는 문곡(文曲)²⁷⁾의 욕(浴)으로 흉방이라 부적합하나 자방(子方)은 총명과 부를 주관하는 탐랑(貪狼)²⁸⁾의 생(生)으로 길방이라 적합하다. 정파는 좌보(左甫)의 쇠이므로 주인을 도와 적합하다.

강한 외수는 간방에서 묘방까지 세 줄기가 들어와 인방에서 합수되었는데 모두 녹존 포태(胞胎)의 흉방 입수로 부적합하며 파군의 위험까지 있었다. 신평(申破)은 무곡(武曲)의 왕(旺)이므로 12운성에서 가장 강한 방향이다. 물이 이곳으로 들어오면 왕기가 날로 더해져 부유해지고 장수하게 되나 이 방위로 나간다면 그만큼 강한 힘이 빠져나가므로 가난하고 요절하게 된다고 하였다. 오차를 감안해 좌향 범위를 확장해도 동입서출(東入西出)은 금산에 모두 부적합하여 이는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즉 내수는 길하나 약하고 강한 외수는 역행하여 용호의 관쇄가 미약한 현장에 왕기를 빼며 안산으로 압박하는 이중 구조로 해석된다. 이는 정축지변을 일으킨 세조가 순흥안씨를 대표 격으로 풍수적 조치를 하였으나 모계의 영향으로 본인도 그 여파를 받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3.2. 현덕왕후(顯德王后) 소릉(昭陵)과 단종(端宗)

현덕왕후는 세자빈 시절 단종을 낳은 다음 날 향년 23세로 승하하였다. 문종은 두 번의 세자빈이 폐출당하는 일을 겪었기에 다시 세자빈을 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이후 소헌왕후와 세종의 연이은 삼년상²⁹⁾에 이어, 문종 본인이 승하하여 단종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 원인으로 영릉

27) 『地理新法』, 「文曲論」, “主淫佚遊蕩之事, 亦主疾厄”

28) 『地理新法』, 「貪狼論」, “主總明 文筆 人口 官職之事, 亦主財富 孝義”

29) 국사편찬위원회,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2005, 123쪽.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태종은 역월제를 시행하여 삼년상을 27일로 줄였으나, 세종부터 정식으로 삼년상을 재개하였다.

풍수가 지적되고 있으나 소릉 또한 “내룡이 약해 아이가 녹아버리고 장손이 일찍 죽는 흉지”라는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단종의 승하는 세종과는 7년 7개월의 시차가 있으며, 부친과는 5년 5개월, 외조모와는 1년 4개월, 모친 능의 파묘와는 단 4개월의 시차가 있다.

〈표 2〉 현덕왕후 가계의 모계 변고와 단종 사사의 상관성

구분	인물 및 사건	날짜(음력)	향년	비고 및 상관성 분석
모계	현덕왕후 승하	1441.7.24	23	산후풍, 안산 소릉
외조부	권전(부친) 사망	1441.윤11.18	70	승하 5개월 후, 경북 안동부 북쪽 10리
부계	세종 승하	1450.2.17	52	당시 내곡동 영릉(英陵)
부계	문종 승하	1452.5.14	37	현릉(顯陵), 동구릉로 197
외조모	해령부부인 사사	1456.6월	-	모계 변고, 묘소 없음
변동	소릉 파묘	1457.6.26		모계 음택의 인위적 훼손
자손	단종 사사	1457.10.21	16	파묘 4개월 후, 장릉(莊陵)
숙부	금성대군 사사	1457.10.21	31	단종과 같은 날 사망, 묘소 없음

소릉은 특이하게 바닷가 입지로 당시 빈궁의 능소인 안산 고읍 땅이 흉악한 땅이라는 목효지의 상소문³⁰⁾³¹⁾에 의거 소릉 터를 분석해 보았다.

세종도 땅이 바다와 가까워 파도 소리가 들릴까 염려된다고 하였는데³²⁾ 일반적인 능·원은 바닷가에 두지 않으므로 이는 힘없는 세자빈이자 외척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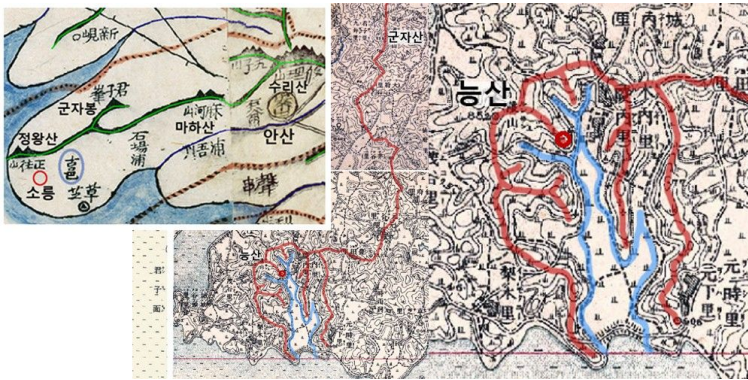
단종복위운동의 실패 후 모친 최씨와 동생 권자신(權自愼)이 사사되었고, 일 년 후 폐서인이 되고 소릉마저 파묘되어 바닷가에 버려지게 되었

30) 『世宗實錄』 卷93, 世宗 23年(1441) 8月 25日 己丑 “빈궁의 능소인 안산 고읍 땅이 흉악한 땅이라는 전농시의 중 목효지의 상소문”

31) 구중회 저, 『능묘와 풍수문화』, 국학자료원, 2008, 371쪽.

32) 『世宗實錄』 卷93, 世宗 23年 8月 28日 壬辰 “然疑其地爲古縣。又恐波濤及聞”

다. 이는 관우물지(棺井址)³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묘 녀 달 후 단종은 영월에서 사사 되었다³⁴⁾. 현덕왕후의 재궁(梓宮)은 후대인 중종 8년(1513)에서야 수습되어 문종의 현릉(顯陵) 옆에 안장되었고, 엄홍도가 비밀리에 수습했던 단종 장릉(莊陵)³⁵⁾도 중종 11년(1516)부터 서서히 제 모습을 찾게 되었다.



〈그림 4〉 소릉 터, 국토지리정보원 50K 지형도, 대동여지도

위치: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이목동과 능산리) 산 47번지

<그림 4>의 동그라미 한 곳이 소릉 터로 추정되며, 좌측 대동여지도에서 안산의 용맥은 한남정맥의 수원 광교산에서 광주 오봉산(205m), 안산의 수리산(398m), 마하산(246m), 군자봉(199m)을 거쳐 정왕산(104m)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능산은 남서쪽 끝에 있어 강하게 연결되는 용맥

33) 세조가 현덕왕후의 소릉을 개장해 관을 바다에 버리자, 관이 도착한 바닷가에 우물이 생겼다는 터의 유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aks.ai/GC02501515>, 2026년 2월 16일

34) 『世祖實錄』 卷9, 世祖 3年(1457) 10月 21日 辛亥 “노산군이 이를 듣고 스스로 목매어서 줄하니, 예로써 장사지냈다.”라는 기록과 『肅宗實錄』 卷33, 肅宗 25年(1699) 1月 2日 壬申 “앞에서 늘 모시던 공생(貢生) 하나가 차마 하지 못할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가, 즉시 아홉 구멍으로 피를 쏟고 죽었다.”라는 타살설 두 가지 설이 있으며 타살설이 유력하다.

35) 당시 노산군묘(魯山君墓),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90

의 흐름을 찾기 어렵다. 민의생(閔義生) 등이 이곳을 우단사련(藕斷絲連)에 비유하며 끊어진 듯 보이나 그 맥이 이어져 있다³⁶⁾고 반박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확실하게 이어진 용맥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록의 주장은 두 가지로, 목효지는 건해산이 변한 계좌정향의 혈로 보았다. 건해는 금, 감은 수, 계는 토다. 이때 파구 사(巳)는 목행이므로 금산의 장생 생기를 파하고 목극토로 혈을 친다고 본 것이다. 반면 민의생은 주산이 임신(화)이며 혈은 감방(자좌오행)이니 사파(목행)는 녹존의 포(胞)로서 흉방이 되어 적합하게 본 것이다.

이를 도상으로 판단해 보면 좌향은 둘의 의견과 다른 임좌병향의 혈로 판단되며 득파는 경입득 사파로 판단된다. 경입수는 탐랑 생으로 적합하나 입입수는 녹존 포로서 부적합하고 사파는 무곡의 왕이므로 매우 부적합하여 득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향보다 형세를 우선³⁷⁾하여도 파구가 관쇄 없이 확장되는 형태이므로 생기가 모일 새도 없이 바다로 바로 빠져나가게 된다.

산의 윗부분에 자리한 천혈(天穴) 또한 조선왕릉 연구논문에 따르면 단 한 기도 해당하지 않았고 대동여지도의 고읍으로 표시된 부분도 꺼린다고 한 내용과 같다.

또 좌산좌수라는 말은 없으며 목효지를 비난하였고 제이 청룡(외청룡)이 곧게 뻗은 것이 아니며 수구(水口)에 이르러 회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룡의 산수동거와 수구가 반배 해 틀린 주장으로 보인다.

결국, 외조모의 사사와 소릉의 파묘에 단종의 사사까지 이어졌다. 이는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발생한 정치적 사건이나 모계 음택의 훼손이 자손의 명운에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36) 『世宗實錄』 卷93, 世宗 23年(1441) 8月 27日 辛卯 “地理書有藕斷絲連之語, 則豈來脈低弱而山氣斷絕乎”

37) 『地理新法』, 「形勢論」, “地以形勢爲本. 有形勢然後, 此法可施. 無形勢而用之, 往往其效不應”

3.3. 흥녕부대부인(興寧府大夫人)과 의경세자(懿敬世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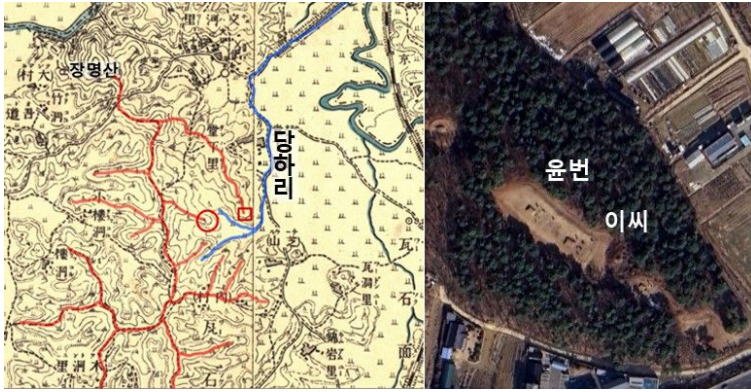
세조와 정희왕후의 장남인 의경세자는 만 19세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의경세자는 타고난 성품이 세조와는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대에 일어난 참혹했던 일들로 인해 심신이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조는 묘를 길지에 두기 위해 백방으로 나서는 한편³⁸⁾ 이를 영릉의 영향으로 판단해 친장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표 3〉 정희왕후 가계의 모계 변고와 의경세자 사망의 상관성

구분	인물 및 사건	날짜(음력)	향년	비고 및 상관성 분석
외조부	판중추원사 윤번	1448.9.5	64	과주시 당하동 240-181
외조모	흥녕부대부인 이씨	1456.7.14	-	모계 음택 감응, 당하동, 생년 미상
변동	소릉(숙모 음택)파묘	1457.6.26		간접 감응
자손	의경세자 요절	1457.9.2	18	외조모 사망 1년 2개월 후, (敬陵)
자손	단종 사사	1457.10.21	16	의경세자 사망 1개월 후

세자의 사망 이전에 발생한 친족의 사건을 찾아보니 1년 2개월 전 외조모의 사망이 있었고 세종과는 7년의 시차가 존재하였다.

38) 음택지를 찾으려는 기록이 『世祖實錄』에 17회 등장



〈그림 5〉 파평윤씨 묘역, 국토지리정보원 50K 지형도, 구글어스

위치: 파주시 당하동 240-181

한북정맥은 백두대간의 추가령 백산 분기점에서 남서로 뻗어 내려와 철원의 대성산(1,175m), 북주산(1,152m), 화천의 광덕산(1,046m), 포천의 백운산(903m), 국망봉(1,167m), 강씨봉(830m), 죽엽산(615m)을 지나, 다시 파주의 현달산(132m)과 고봉산(208m)을 거쳐 교하면 장명산(102m)에 이른다. 동그라미 지점이 윤번과 이씨 묘역이다.

낮은 구릉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접근성이 좋고 백호용맥은 고봉산에서 장명산으로 한북정맥의 말단으로 낮게 굽이치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의 생룡이다. 혈장은 장명산으로 진행되는 한북정맥의 지룡에 자리하였는데 진행 방향에서 갑자기 을방을 향해 뻗어 있어 진행되는 용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세가 아니며 그렇다고 회룡고조혈로 보기에는 짧고 회전하는 힘이 보이지 않는다. 직룡 입수한 윤번의 묘역 뒤는 완만하고 주산이 보이지 않으며 입수도두 및 선익 전순 모두 선명하지 않았다.

청룡쪽 물길은 1930년대 침엽수림이 변하여 현재 폭 100m가량의 논이 있으며 당하리라 표시된 파평윤씨 묘역이 외청룡에 해당한다. 백호안산은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용맥의 지맥으로 백호가 발달하였다.

수세는 혈장을 중심으로 환포하는 수세가 아니며 우선수보다 당하리를 감싸고 도는 형세의 좌선수가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좌향은 윤번과 이씨 묘역 모두 술좌진향(戌坐辰向)으로 수산음국(水山陰局)이며 입수는 간오득(艮午得)으로 북동방에서 내려오는 물길은 문국의 육이며, 남쪽에서 올라오는 물길은 녹존의 포이다. 두 방향 모두 흉방 입수로 부적합하다. 특히 포는 생명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반드시 빠져나가야만 길한 방향인데 물이 들어오는 형세이다.

묘파(卯破)는 탐랑 생으로 역시 길방이라 파구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리신법』에서는 탐랑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매우 좋지 않게 보았는데, 탐랑수가 파구로 빠져나가면 모든 일이 쇠퇴하며, 자손은 적고 불행한 일이 많다고 하였다.³⁹⁾ 이는 생왕(生旺)의 기운을 충파(沖破)하여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본신통과 청룡의 형세가 약하며 득파의 흐름도 부적합한데 이는 정희왕후⁴⁰⁾의 2남 2녀 모두 본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지리신법』의 설명과 맞는 부분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는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한북정맥의 요도(橈棹) 또는 지각(止脚)으로 판단된다. 행룡을 지탱하기 위해 을방(乙方)으로 뻗어 버티는 형국이다. 백호맥이 한북정맥을 타고 있으므로 내룡맥이 그 기운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참고로 묘역의 외청룡인 당하리에 네모로 표시한 부분은 용맥의 흐름이나 수세의 좌향에 있어 정혈의 가능성이 컸다. 이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청룡 백호를 갖추는 것보다 생기를 타는 용맥에 자리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의경세자는 당대의 불행했던 사건들과 함께 외조모의 사망으로 인한 음택의 감응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며, 시기적으로 소릉 사건의 영향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4. 장순왕후(章順王后) 공릉(恭陵)과 인성대군(仁城大君)

의경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세조는 바로 차남 해양대군을 왕세자

39) 『地理新法』, 「貪狼論」, “流破之, 則皆衰退矣.(…) 山低沒而水破之, 則小口多災.”

40) 윤번과 이씨 사이의 3남 7녀 중 7녀로 아홉째이며 1483년 향년 64세로 승하

로 임명하였다. 당시 의경세자는 어린 나이였으나 이미 월산대군과 명숙공주, 자을산군을 두었기에 장남인 월산대군이 왕세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세조는 해양대군을 왕세자로 정한 뒤 한명회의 3녀를 세자빈으로 간택하였으니 바로 장순왕후이다. 그러나 장순왕후는 16세에 원손인 인성대군을 낳은 후 닷새 만에 산후풍으로 승하하였고 인성대군도 두 돌이 가까운 시점에 풍질로 요절하였다. 이에 모계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장순왕후가 묻힌 파주삼릉의 공릉을 찾아보았다.

〈표 4〉 장순왕후 가계의 모계 변고와 인성대군 사망의 상관성

구분	인물 및 사건	날짜(음력)	향년	비고 및 상관성 분석
모계	장순왕후 승하	1461.12.5	16	산후풍, 공릉(恭陵)
자손	인성대군 요절	1463.10.24	1	1461.11.30. 출생 (생후 23개월 사망)



〈그림 6〉 파주삼릉, 국토지리정보원 50K 지형도, 구글어스

위치: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2

이곳은 한북정맥에 속하여 추가령 분기점에서 양주 불곡산(466m)까지는 앞의 윤번·이씨 묘역과 같고 이후 분지하여, 개명산(560m), 명봉산(245m)을 지나 파주삼릉으로 이어진다.

공릉은 조산(祖山)에 비해 안산이 크게 발달하였다. 이는 용맥이 진행되어 온 방향을 바라보며 안산이 발달하였기에 회룡고조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회룡고조혈은 혈에서 소조산(小祖山)을 바라보고 있으며 회전하는 힘이 작용하므로 생기가 강한 길지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곳은 안산의 형세가 조산(朝山)으로서 혈을 보호하는 형세로 보이지 않으며 거리도 가까워 위압적이고 회전하는 힘이 모인 곳에 혈장이 자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좌선수가 흐르기 때문에 백호에서 거수해야 하는데 내백호가 반배하여 거수하지 못하고 우선수와 함께 빠져나가고 있다. 현장 확인에서도 내청룡이 짧고 내백호에 비해 낮으며 길이 나 있었다.

좌향은 술좌진향(戌坐辰向)으로 수산음국이다. 수세는 계득정파(癸得丁破)로 득수가 문곡 대(帶)의 흉방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곡은 질병과 재앙을 주관한다. 정파(丁破)는 파군(破軍) 묘파(墓破)인데 파군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지나가며 묘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득파 모두 불가하게 보고 있다. 『지리신법』에서는 “파군수가 수구 방향에서 흘러감이 재앙(災殃)이 더 심한 것은, 기(氣)를 부딪쳐 깨뜨려서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⁴¹⁾라고 하여 득수보다 더욱 심각하게 여겼다.

만약 건곤간손(乾坤艮巽) 방위의 파군이었다면 그나마 강한 기운의 방위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을 것이나 그렇지 못했고 득수마저 흉방이므로 더욱 흉한 기운이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곡으로 질병이 들어와 파군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지나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인성대군의 경우 이와 같은 흐름을 보여 모계 음택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까지 앞에서 설명한 개별 사례들을 보면 친모 및 외조모의 사망 또는 묘역의 문제 후 자손의 사망이 잇따르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례에서 나타난 모계 음택의 풍수적 변동과 감응 관계에 대해 좀 더 고찰해 보았다.

41) 『地理新法』, 「破軍論」, “而去之, 禍甚於來, 以來, 則不過於藏宿 之不固, 去, 則衝敗之, 而無餘矣.”

4. 모계 음택의 풍수적 변동과 자손 감응의 상관성

4.1. 모계 음택의 안정성 변동과 감응

3장의 사례에서 볼 때 모계 음택의 합장이나 천장 또는 파묘의 사건이 발생한 후 자손의 번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동기감응의 시각에서 보면, 안정되게 취기(聚氣)하고 있는 음택의 생기가 개장을 통해 열리면서 흩어지자, 편히 잠들어 있던 체백(體魄)의 상태에 영향을 주어 이와 강하게 동기화된 자손이 감응하여 취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추정된다.

심은 묘소의 경우 26년 동안의 안정을 깨고 부인과 합장하자 1년 후 소헌왕후가 승하했으며, 다시 23년간의 안정이 깨어지며 천장이 발생하자 다시 세조와 임영대군이 잇따라 번고를 당하였다. 자연사는 아니나 소릉의 파묘 6 달 후에는 단종이 승하하였다.

사례에는 빠져 있으나 문종의 경우 세종 승하 2년 2개월 후 승하하여 세종 영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인물로 추정되는데 이때도 소헌왕후와 합장이 있었다. 이는 합장을 통해 이마저도 소헌왕후의 능의 안정이 깨어진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모계 사례는 아니나 예종이 영릉 조성 후 19년 만에 천장을 거행, 단 8개월 만에 승하하여 개장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4.2. 모계 음택의 풍수적 구조와 감응

개장이 없던 사례의 경우 용이 행룡 과정에서 상하좌우의 운동 및 과협, 봉요 등을 만족하는 생룡이라 할지라도 주로 사신사에서 청룡이 약하고 안산이 강한 특징을 보였다. 안산은 본신 안산이 아닌 구조였다. 회룡고조혈의 경우 혈에서 소조산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을 낳아준 조상이므로 주산보다 안산이 높은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회전하는 힘이 강한 생룡의 의미가 중요하며 주산의 회전력이 소조산에서 왔을 때 의미가 있다. 회전이 약하면서 안산이 높은 경우에는 회전 방향과 혈의

위치가 구조적으로 맞지 않아 혈장의 에너지 응집이 약하며 안산이 오히려 상층 구조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어 회룡고조혈의 판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 수세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지리신법』의 「수론」에서 물은 양(陽)에 속해 변화를 주관하며 길흉화복에 있어 더욱 빠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수세에서 확인할 것은 오성수와 같은 수세의 형세도 중요하나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득파의 방향과 관쇄 여부였다.

좌향이 중요한 이유는 길방에서 물이 들어와 혈장을 감싸고 흘러 혈장에 좋은 기운을 전달한 후 흉방으로 빠져나가야 바른 혈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흉방에서 물이 들어와 혈장에 흉한 기운을 전달한 후 길방으로 빠지면서 혈장에 남아 있는 좋은 기운을 설기 시키고 생기를 깨뜨리는 작용을 함으로써 자손에게 번고를 일으켰다. 관쇄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혈처의 생기가 모이지 못하고 흘러나가 자손의 힘을 점차 설기 시켰다.

정혈의 경우에는 득파의 방향이 맞았으며 정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득파 또한 맞지 않았다. 이것은 『지리신법』의 구성론의 내용과도 맞아떨어졌으며 이 점은 앞으로 더 많은 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3. 모계 음택의 혈연 확장 감응

다른 사례와 달리 의경세자와 단종은 특별한 경우로 서로 유사한 지점이 있었다. 둘 다 장남이며, 단종의 외조모가 사사된 한 달 후, 의경세자의 외조모가 사망하였다. 외조모 이씨 사망 1년 2개월 후 의경세자가 사망하였고, 외조모 최씨 사망 1년 4개월 후 단종이 승하하였다. 소릉 파묘 시점에서는 약 두 달 후 의경세자가 사망하였고 다시 50일 무렵 단종이 승하하였다.

비슷한 간격으로 외조모와 외손자의 사망이 잇달아 발생하여 둘 사이는 강한 모계 감응의 상관관계가 추정되는데, 이는 외조모 천장 후 세조

는 1년 4개월, 임영대군은 1년 8개월 후 사망하여 시간적 유사성을 보였다.

특히 1457년 소릉 파묘 후, 두 장남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은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거나 이를 2장에서 설명한 생물학적 동기감응 기제로 고찰하여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경세자와 단종은 사촌 간으로 둘 다 조부 세종의 부계 유전자를 이어받았으며, 장남으로서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 태아 미세키메리즘에 의하면 현덕왕후의 몸에는 단종 회임 시 유입된 Y염색체 세포가 존재한다. 이 Y염색체는 세종으로부터 문종을 거쳐 물려받은 것으로, 의경세자가 세조를 통해 보유한 Y염색체와도 유전적 유사성을 공유한다. 즉, 일정 부분 유사성을 지닌 부계 유전자가 단종 모친의 음택을 통해 감응현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소릉 파묘는 풍수에 능했던 세조가 단종을 고립시키기 위해 저지른 역풍수(逆風水) 행위였다. 이는 소릉에 동기화된 부계 유전자에도 물리적 충격을 주었을 수 있으며, 이것은 단종은 물론 의경세자와 세조 본인에게도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세조가 극심한 피부병에 시달리기 시작한 시점이 소릉 파묘 및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났다는 시기와 일치하는 점은, 모계 음택이 가계에 미치는 감응의 범주에 대해 재고하게 한다.

파묘된 재궁이 다시 현릉에 안치되는 시기는 1513년이므로 세조는 승하할 때까지 파묘의 여파와 외조모 순흥안씨의 천장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며 병세 또한 심해지다가 승하하게 되었다.

이는 모계 풍수가 직계자손뿐 아니라 혈연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가계구성원의 명운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4.4. 모계 음택 감응의 관계성

본 연구에서 다룬 3장의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유의미한 관계성이 도출되었다.

첫째, 감응의 시 계열적 긴밀성이다. 자손의 흉사 발생 시 그 이전에 발생한 조상의 사망 관계를 역산해 볼 때 모친의 음택 번고가 가장 먼저

일어났으며, 다음은 모친 음택의 풍수적 결함, 외조모의 사망 및 음택 문제가 발견되었다. 길면 3년, 대략 1년 8개월 이내에 자손의 흉사가 뒤따르는 패턴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조부나 외조부와의 변고가 5년 이상의 시간적인 거리를 두는 것과 대조적이다. 문종만이 부친인 세종 영릉 조성과 약 2년의 차이를 보였으나, 이 역시 소헌왕후의 합장이 수반된 사건이었으므로 순수한 부계적 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가까운 시차를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직접적인 감응의 인과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겠으나, 인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격대 감응과 모체 매개설이다. 동기감응은 모자(母子)로만 감응되는 것이 아니며 외조모-모-자에서 모친을 매개로도 일어났다. 소헌왕후 모친과 광평대군·평원대군의 사례와 정희왕후 모친과 의경세자의 사례에 해당한다. 어떤 경우에 외조모와 외손자 간 감응이 일어나는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출생순서와 성별에 따른 감응의 차별성이다. 사례분석 결과, 장남은 모친(모계)과 장녀는 부친(부계)과 대체로 강한 감응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장녀인 현덕왕후의 경우 본인의 승하 5개월 후 부친이 사망하였다. 장녀인 소헌왕후도 모친 사망 후 부친의 묘소와 합장이 있었다. 단종과 인성 대군도 이에 해당하였다. 반면 차남은 부친과 관련성이 높거나 모계 음택의 변고에서 상대적으로 관계성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 심은 묘소의 합장과 모친의 천장에도 차남은 거의 무관하였다. 영릉 조성 후 문종은 쇠락했으나 세조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영릉 천장 후 차남인 예종이 승하하여 감응 관계의 경향을 따르는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관계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사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5>와 <표 6>은 사례지의 풍수 입지분석과 자손과의 관계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모계 음택의 지리오결 분석

		심은 순흥안씨 합장묘	순흥안씨 천장 묘	현덕왕후 소릉 (추정지)	인천이씨 묘	장순왕후 공릉
용		지각, 요도, 과협, 박환 등 생룡요건 충족	한남금북정맥 의 분기점	용맥이 뚜렷하지 못함, 주산 약함	요도 및 지각성 내룡맥, 백호맥이 생룡 충족	지각, 요도, 과협, 박환 등 생룡이나 회룡입수부족
사		사신사 충족	한남정맥주산, 금북정맥안산,	청룡·백호 반배, 백호 안산	주산 낮음 청룡 약함 한북정맥 백호	청룡 약하고 물길,백호반배, 안산 강함
수	종류	금성수	금성수	목성수	금성수	금성수
	관쇄	강한관쇄	용호관쇄가 아님	열린 수구	보통 관쇄	관쇄 약함
혈		유혈	유혈	천혈	유혈 형태	유혈
향	좌향	계좌정향	해좌사향	임좌병향	술좌진향	술좌진향
	오행	토산음국	금산음국	화산음국	수산음국	수산음국
	득과	술/사	자/정, 인/申	경, 임/사	간,오/묘	계/정
	구성	거문/녹존	탐랑/좌보, 녹존/무곡	탐랑,녹존/무 곡	문곡,녹존/탐랑	문곡/파군
	포태	쇠/태	생/쇠, 태/왕	생,포/왕	육,포/생	대/묘
	길흉	길/흉	길/길, 흉/길	길,흉/길	흉,흉/길	흉/흉
	적부	적/적	적/적, 부/부	적,부/부	부,부/부	부/부 (득과불가)
비고		명당개장영향	정맥분기점 외수·무곡수과	열린수구, 무곡수과	지각, 탐랑수과	파군수과

〈표 6〉 모계 음택 변동과 자손과의 상관성

	심은 순흥안씨 합장묘	순흥안씨 천장 묘	현덕왕후 소릉 (추정지)	인천이씨 묘	장순왕후 공릉
관련 후손	광평·평원대군, 소헌왕후	세조, 임영대군	단종, 의경세자	의경세자	인성대군
모계관련 시차	13일, 52일, 1년	1년 4개월, 1년 8개월	16년 / 파묘 후 4개월, 2개월	1년 2개월	1년 10개월
세종관련 시차	-	18년, 19년	7년 8개월	7년 7개월	13년 8개월
주요 사건	사망 및 합장으로 인한 묘역 개방	안성 천장	터의 문제, 파묘 후 재궁훼손, 외조모 사사	묘역의 형세와 수세의 좌향 문제	산후조기사망, 용수의 형세 및 좌향 문제
동기감응 유형	입관 전 상태의 감응과 합장으로 인한 안정성 파괴	천장으로 인한 안정성 파괴와 천장 이후 수세의 영향	수세의 영향, 파묘 감응, 혈연확장감응	모체를 통한 격대감응 및 수세의 영향	지지기반 상실 및 수세의 영향

5. 결론

본 연구는 자손의 갑작스러운 흥사의 원인으로 모계 음택의 풍수적 영향력의 규명을 시도하였다. 이는 부계 또는 부모로 통칭 되어 모호했던 동기감응의 작용을 모계로 한정하여 관계성을 추적해 보려는 시도였다. 그 학술적 근거로 『주역』의 대대론과 미토콘드리아 DNA의 모계 유전 및 태아 미세키메리즘 현상을 제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모계 음택의 상태가 특히 유전적 관련이 깊은 자손과 더 강하게 감응할 가능성에 대한 추론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조선 초 이어진 장자의 죽음에는 세종의 영릉 풍수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가계도 상 일관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결과 이러한 장자들의 흥사 이전에 모계 쪽 음택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계 음택의 풍수적 결함은 자손의 요절 및 절사손장자의 비극과 시 계열적으로 밀접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인위적 훼손뿐 아니라 합장이나 천장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운·순흥안씨 묘역을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수세의 득파에 결함이 나타났는데, 이는 형세의 미흡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지리신법』의 이론과도 일치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입지 선정과정의 소홀함, 외척에 대한 정치적 탄압, 길지와 무관했던 운명적 한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성리학적 명분이 간과한 모계 음택의 영향력이 왕권의 영속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조선 초기 왕실의 모계 묘역 변동과 비극적 사건 간의 풍수적 상관성을 조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따라서 유사한 추가 사례와 함께 모계 묘역의 변화가 없음에도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반대 사례와 모계 묘역의 문제에도 자손이 번영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 검토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바,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원전 및 단행본>

- 『錦囊經』, 『朝鮮王朝實錄』, 『周易』, 『地理新法』, 『靑烏經』
 광박 저, 허찬구 역주, 『葬書譯註』, 비봉출판사, 2005, 67쪽.
 구중회 저, 『능묘와 풍수문화』, 국학자료원, 2008, 371쪽.
 국사편찬위원회,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2005, 123쪽.
 김동규 저, 『協紀辨方書 1』, 명문당, 2018, 126쪽.
 한중수 역, 『靑烏經』, 명문당, 2002, 17쪽.

<연구 논문>

- 권선정, 「생태중심적 환경관으로서의 풍수 - 풍수 ‘동기감응론’의 지리학적 해석」, 『국토지리학회지』 38(3), 국토지리학회, 2004, 259-271쪽.
 김지희, 「조선시대 왕실 사친묘의 운영과 사도묘의 건립」,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김철완, 「조선왕릉에 관한 풍수연구-좌향론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박경정, 「세계유산 조선 왕릉의 입지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박소형,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법을 이용한 한국인의 미토콘드리아 전체염기서열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8-9쪽.
 박일용, 「풍수 동기감응론의 역학적 접근」, 『한국민족문화』 6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151쪽.
 박정해·한동수, 「조선 유학자들의 동기감응론 인식」, 『한국민족문화』 41, 2011, 29쪽.
 박헌영, 「『葬書』에 나타난 동기감응설」, 『도교문화연구』 20, 한국도교문화학회, 2004, 309쪽.
 이재영, 「조선왕릉의 풍수지리적 해석과 계량적 분석연구」, 동방문화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이진삼·천인호, 「風水 同氣感應은 親子感應인가?」, 『한국학논집』, 4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401쪽.
 장은미·박경, 「조선시대 왕릉의 공간적 분포특성 - 위성영상분석과 지질·지형분석의 방법으로」, 『한국GIS학회지』 14(3), 2006, 286-297쪽.
 정용수,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본 땅의 에너지 연구」,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

- 논문집』 30, 한국정신과학학회, 2009, 152-153쪽.
- _____, 「전통풍수학의 과동론적 기의 대한 고찰」, 『한국정신과학 학술대회논문집』 27, 한국정신과학학회, 2007, 172쪽.
- 조인수, 「조선시대 황릉의 현상과 특징: 명청대 황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62, 한국미술사학회, 2009, 69-98쪽.
- Diana W. Bianchi et al. , "Male fetal progenitor cells persist in maternal blood for as long as 27 year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NAS)*, 93(2), 1996, pp. 705-708.
- Mitalipov, Shoukhrat et al. , "Molecular basis for maternal inheritance of human mitochondrial DNA," *Nature Genetics*, 55(10), 2023, pp. 1632-1639.
- Rina J. Kara et al. , "Fetal cells traffic to injured maternal myocardium and undergo cardiac differentiation", *Circulation Research*, 109(11), 2011, pp. 1294-1304.

<웹사이트>

구글어스 <https://earth.google.com/web/>
국토정보맵 <https://map.ngii.go.kr/mn/mainPage.do>
카카오맵 <https://map.kakao.com/>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aks.ai/GC02501515>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atrilineal Feng Shui in the Early Joseon Dynasty - Centered on the Yin-Yang Theory of I Ching and Biological Mechanisms of Resonance

JUNG, DAEUN

(Editorial Director at Society of Eastern Culture and Convergence)

This study reinterprets the theory of Dong-gi-gam-eung (同氣感應, Resonance of Vital Energy), a core principle of Feng Shui, by integrating the Yin-Yang theory of the I Ching (Book of Changes) with modern biology. While the Joseon Dynasty focused predominantly on patrilineal Feng Shui discourses under the Neo-Confucian order,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essence of Yin-Yang through mutual complementarity(對待, daedae) and transformation (變易, byeon-yeok), examining it from the perspective of "Matrilineal Feng Shui," the foundation of life's origin.

As scientific evidence for the resonance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this study proposes Mitochondrial DNA (mtDNA), which is inherited exclusively through the maternal line, and "Fetal Microchimerism," a phenomenon involving cellular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fetus. To verify this empirically, the study analyzed the Feng Shui elements of the burial sites of Sim On and Lady An of Sunheung, Soreung(昭陵, The Royal Tomb of Queen Hyeondeok), the tomb of Lady Lee of Incheon, and Gongneung (恭陵, The Royal Tomb of Queen Jangsun).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well-being of descendants responds sensitively and rapidly to the stability and water flow (水勢, suse) of maternal tomb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early Joseon tragedies of Jeol-sa-son-jang-ja(絶嗣損長子), the extinction of lineage and loss of the eldest son, were not solely due to defects in King Sejong's Yeongneung(英陵) but were a cumulative result of overlapping Feng Shui issues in matrilineal burial site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novel methodology for tracing the resonant relationships within the theory of Dong-gi-gam-eung.

Keywords: Resonance of Vital Energy, Feng Shui, Matrilineal Feng Shui, King Danjong, Mutual complementarity, Grave geomancy, 『Jirisinbub(地理新法)』

정다운

소 속: 동양문화융합학회 편집이사(풍수융합 전공)

전자우편: danastarsun@daum.net

논문투고일 2026. 04. 30 / 심사완료일 2026. 06. 10 / 게재결정일 2026. 06. 14